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알림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 기록을 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다음 주일(8/30)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 2차헌금

- 교구 공문에 의거 5월31일 청소년 주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2차헌금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로 이동하여 실시합니다.

노인 분과

- **베타니아 노인정 운영 재개 연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운영 재개를 연기합니다.

10월 세례식 일정

입교식	오늘 교중미사 중
참고, 세례연습	10월11일(주일) 교중미사 후
세례식	10월17일(토) 14:00
첫 영성체	10월18일(주일) 교중미사 중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8월23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8월30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9월06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9월13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9월20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주일 (8/3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3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8월12일 ~ 8월18일)

• 교 무 금		6,870,000 원
• 주일헌금		3,494,000 원
• 성모승천 대축일 헌금		3,337,000 원
• 감사헌금	이영숙10만원 김영실30만원 이길자 5만원 최남준10만원 최순애10만원 정승우10만원 정종국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8/23	권태희	서윤석 오성환 최상림 김재규	장익근 백희자
8/30	이인옥	최영만 심재순 도현만 김진수	강철등 정연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8/23	김인기	이성일	장인홍 최상남 최승일	오광운	이운영	없음
8/30	박승환	이운영	최창열 최석준 김광수	최창열	최상남	없음

주보 7면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311. ‘그리스도교적으로’ 참여한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희망으로 힘을 얻는 형제자매, 곧 교회를 고향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찰력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증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만일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것이었다면, 그들은 분명 그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모순된 진술조차도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임을 도리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사가들이 실제로 이념을 만들어 내서 세상에 제시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그들은 모순이 없게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312. 사회 복지 국가들은 이미 체계적인 사회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왜 교회가 더 참여해야 하나요?

돈만으로는 복음에서 의미하는 인간 존엄성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병자를 방문하고, 이방인을 환대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을 오로지 공적 제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종종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카리타스 기구 사회봉사 단체, 노숙인 식당, 헌옷 재활용 등의 활동은 참으로 뛰어난 교회의 사회 참여입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함께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중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13. 우리는 왜 꼭 교회 안에서 활동해야 하나요?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하면 좋은 훌륭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우리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두리, 곧 사람들이 극단적인 환난을 겪는 곳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에서 모든 힘을 다써서 변화시키는 힘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안에서 일하기보다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 복지에 대한 계획을 멀리하는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의 죄나 교회 안에서의 불쾌한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단체나 기구에 모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적극적인 공무원과 소극적인 수혜자로 나뉜 기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장소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로 존재하는 한 몸이고, 죄인과 의인들로 이루어진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지체인 우리가 형성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활동해야 하고, 교회와 함께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를 가꾸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